

“소멸과 생성 반복되는 농촌 일상 담았죠”

첫 시집 '별을 보러 강으로...' 펴낸 정양주 시인
구례동중 근무...따뜻한 시골이야기 소개
해직 아픔 딛고 30여년 교직·문단생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사 시인'이 시력 30여 년 만에 첫 시집을 발간해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구례동중에 근무하는 정양주 시인(59).

이번에 펴낸 '별을 보러 강으로 갔다' (문학들)는 한마디로 '소멸과 생성을 응시하는 강물 같은 시'다. 별과 강이 주는 이미지는 다분히 서정적이며 고즈넉하다. 평소 문단 활동을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시인의 심성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시집 출간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시인과 통화를 했다. 아마 방학이어서 연수를 받고 있겠거니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연수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서글서글한 인상과 조근조근한 말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과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그는 "굳이 시집을 내려 애를 쓰지 않았지만 주변의 권유도 있었고 나이도 있어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펴냈다"고 발간 의미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10여 년간 창작한 작품을 묶어냈다.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농촌의 피해한 모습과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 등이 주 소재"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그가 노래하는 것은 작고 하찮은 것들이다. 한마디로 보잘 것 없고 존재감이 없다. 폐교 운동장의 개망초, 죽어 말라비틀어진 새 등 소멸과 관련 있는 소재들이다. 슬픔과 설렘 그리고 바람이 한데 뒤섞여 그려내는 서정의 무늬는 애잔하다. 소리를 내 시집을 읽으면



잔잔한 울림이 내면으로 밀려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하늘이 두 뺨쯤 되는 산골까지 집 마당에/ 백 축짜리 백열등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저 집에서 다시 불빛 새어 나올 일 없습니다/ 장독대 향아리를 다시 빛날 날 없습니다/ 뒷마루에 걸터앉을 엉덩이 없습니다 시골집 한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마지막 불빛입니다"

"황하면 끝입니다"는 그의 시 세계를 드러내는 작품이다. 변두리 쓸쓸한 풍경은 장엄하면서도 슬프다. 기성세대라면 유년의 저편에 자리한 기억의 한편을 펼쳐내는 듯한 삽화다.

그 운명들은 현실화돼 "양은 주전자 혼자 마루 햇살을 차지하고" "거미가 떠난 거미줄은 목은 숨처럼 처져 있"게 되지만 시인은 그 소멸의 끝에서 "열 살 때 엄니따라 시래기 주우러 온" 것과 나아가 "누나들과 길게 이마 맞대고 싶은" 고향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시인은 단순히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그리움은 당연히 존재해야 할, 다시 말해 생성을 염원하는 사유의 확장으로 이어진다. "황하면 끝"인 세계에 대한 탐색은 생성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로 읽힌다.

시인의 이 같은 여정은 그의 삶에서 겪은 '해직'이라는 '유배'의 시간과도 연관돼 있다. 정 교사는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정 과정에서 해직을 당한다.

"전교조 사무실에서 일하며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늘 즐겁다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당시에 무엇을 위해 살았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흘러갈까, 나름의 성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대학 선후배, 같은 교직의 길을 걸었던 동료 등 삶에 있어 버팀목이 되는 분들을 만나 어려운 시절을 건넜거든요."

그는 전남대 국문과 시절 용봉문학회에서 활동했다. 당시 함께 문학 동아리활동을 했던 선배가 광재구 시인이다. 광재구 시인 그리고 동아리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레 시 창작의 길로 들어선다. 1989년 지역 신문의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순천 작가회의, 광주전남작가회의 등에서 꾸준한 동인활동을 해왔다.

광재구 시인은 추천사에서 "시인은 이제 푸른 나뭇잎 속으로 스며드는 꿈을 꾸다. 문화부 벤치에서 함께 등산을 본 한 동무로서 이 스며드는 흥분은 이해가 된다"며 "30년 세월 동안 교단에 선 그가 나뭇잎이 되어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것들에게 반짝임을 선물하고 싶어한다"고 평했다.

오래 묵은 시상을 비로소 환관의 시집으로 엮어낸 그에게 과연 시는 무엇일까. 그는 천성적으로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기질을 타고난 것 같다.

"저에게 시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순간순간의 깨달음의 토대가 되기도 하죠. 시는 지나친 포즈나 감정의 발산이 아닌 내가 느낀 것을 진솔하게 나누는 과정이 아닐까요."

한편 정양주 시인은 전남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전남작가회의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지난 2016년 개최된 '아트광주'의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일까? 아마도 미술품을 거래하는 아트페어의 특성상 작품을 많이 판매한 작가가 갤러리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지역미술계에서 회자된 영예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이었다. 개관 1주년을 맞은 전당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아트광주 16'은 역대 최다관람객 8만여 명을 기록했고 13개국에서 74개 갤러리가 참여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정작 아트페어를 주관한 광주미협 관계자들은 전당 "경직된" 운영에 적잖은 마음고생을 했다고 한다. 문화전당의 문화창조원

난감해서였다. 물론 대중적인 물놀이를 통해 전당을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알리고 싶은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한 전당의 콘텐츠는 꼭 순수예술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꼭 수영장이어야 했을까. 다른 방식은 없었을까, 꽤ني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개관 3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전당만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문화적인' 이벤트는 자칫 득보다는 실(失)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전당은 '2018 광주비엔날레' (9월7~11월11일) 66일 행사기간 동안 매주 월요일에는 종전대로 휴관하기로 해 문화계의 반쪽을 사고

문화전당과 수영장

과 예술극장 두 곳에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립시설이라는 이유로 제약 사항이 많아 공간을 배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불편한 관람 동선이 그중 하나였다. 예술극장과 문화창조원의 실내 동선이 연결되지 않아 방문객들은 각각의 출입구를 통해 전시를 관람해야 했다.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더니 야외 수영장이네요!' 며칠 전 서울에서 활동하는 미술평론가 M이 필자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 일부다. 그러면서 전당 광장에 설치된 80m 길이의 초대형 워터 슬라이드 수영장 세트 사진을 첨부했다. 모처럼 문화전당의 전시를 둘러보기 위해 광주에 왔는데 광장 한 가운데 자리한 수영장 세트를 보고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다. 나 역시 세계적인 복합문화시설과 수영장의 조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다. 올해 비엔날레는 전당과 재단이 상호협력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비엔날레 전시관과 전당의 문화창조원 두 곳에서 개최된다.

하지만 전당의 '월요일 휴관' 원칙으로 상생효과가 반감될 듯하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비엔날레기간 문화창조원을 오픈해달라는 재단의 요구를 전당 측이 거절한 것이다. 개관이후 고수해는 휴관원칙과 시설보안 등의 이유에서다. 때문에 월요일에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비엔날레 전시관과 달리 전당에서 열리는 일부 전시는 볼 수 없다.

'월요일 반쪽 관람'이라는 변수가 광주비엔날레의 관람객 유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궁금하다. '안방'을 수영장으로 내준 '통큰' 전당이 정작 문화행사에는 왜 그리 깡깡한지. 전당의 정체성은 '국립'이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아닌 그간의 궤적에서 나오는데 말이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아시아서적문학회 '하계 문학 캠프' 성료

아시아서적문학회는 최근 1박 2일 일정으로 해남 땅길 송호학생수련장에서 전국 문학인 하계 문학 캠프를 열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여름 문학캠프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학인 120여 명이 참여해 '문학이 있어 행복한 사회 문인이 있어 밝고 건강한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문학 특강에는 한국 현대문학작가연대 이사장 김용연

시인의 '좋은 글쓰기 요령'이라는 주제 강연이 있었다. 3부에서는 때맞춰 발간한 정덕현, 양희자 시인의 시집 출판기념회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해변 캠프파이어'에 이어 '문학인 어울림 한마당'이 진행됐다.

마지막 날에는 '대흥사'를 탐방하고 월출산 자락의 '백운정원'을 둘러본 후 아쉬운 석별의 시간을 가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 소설 다시 읽고 싶진 않아...” 하루키의 솔직한 인터뷰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 출간

"전 사실 예전부터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연애편지는 제법 잘 썼던 것 같아요. 설득력 있게.", "내가 쓴 소설을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전 세계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지닌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그가 아쿠타가와 상 수상 작가인 가와카미 미에코와 나는 인터뷰 내용을 담은 책이 발간됐다. '수리부엉이는 황혼에 날아오른다' (문학동네·사진)에는 하루키의 솔직하면서도 내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인터뷰를 한 가와카미는 가수 출신으로 작가뿐 아니라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다재다능한 여성이다. 책은 2015년 한 문예지 정착을 받아 하루키를 인터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수많은 독자를 대변한다는 책임감 비슷한 것 때문에 처음에 긴장했다는 가와카미는 "심대중반부터 꾸준히 읽



어운 작품의 작가에게 지금의 내가 마음껏 물어보면 된다"고 마음먹고 인터뷰를 했다고 한다.

가와카미는 하루키 작품에서 여성주의 시각으로 비판받는 부분을 지적한다. 이에 하루키의 대답은 이렇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어떤 등장인물에 대해서든 그리 깊이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 인물이 어떤 세계에 관계되었는가, 요컨대 그 인터페이스(접면)가 주된 문제지, 존재 자체의 의미나 무게, 방향성 등은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지 않으려 주의하는 편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자아에 대해서는 되도록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공모

인터넷 서점 예스24(www.yes24.com)가 어린이들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 15회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2005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5회를 맞은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에는 작년에 약 800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으며, 1만여 편의 독후감이 응모됐다.

응모 방법은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책'을 주제로 독후감을 작성해 예스24 홈페이지 블로그에 9월 6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분량은 예비초등학생 100자, 저학년 300자, 고학년 600자 이상으로 심사기준은 '최소 분량 기준 부합 여부', '책에 대한 이해도', '생각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수상자는 10월 11일 오후 3시부터 예스24 어린이 독후감 대회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1월 3일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 내 어린이 독후감 대회 블로그(http://blog.yes24.com/kidsreview/2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406-211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